

충남도, 유망 중소기업 28개 업체 지정

- 6년간 정보·기술·금융 지원받게 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충남도는 도내 28개 중소기업체를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였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28개 업체는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35개 업체 중 도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첨단기술·특허보유·품질인증·해외수출유망제품 등을 고려, 최종 지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6년 동안 도·시군·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기술·금융 등을 지원받게 돼,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충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시 추가 이차보전 1.0% 우대금리 적용 ▲전시회·박람회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참가시 우선지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진기술지도 및 지원 ▲금융관계 지원기관으로 부터의 우대지원 ▲유망 중소기업 표지판 설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도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44개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75개 업체가 지원이 완료됐고, 26개 업체가 지정 취소돼 현재 143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2008년도 도내 유망중소기업 지정 업체 (28업체)

시·군명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자	생산품목명	종업원	비고
천안시 (11)	1	(주)세림티앤디	김창동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50-30	2000.7.1	자동차부품	12	
	2	(주)스마트에이스	전원섭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제4산업단지	2002.12.20	반도체장치	123	수출
	3	서우테크놀로지(주)	박상규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39-1	1990.10.27	반도체금형	19	수출
	4	(주)펜믹스	김용옥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7-5	2004. 4. 2	아모크라	54	수출
	5	(주)동국일렉콘스	김교봉	천안시 백석동 555-31	1998.11.13	계측제어시스템	9	
	6	자경케미칼(주)	이기석	천안시 성거읍 341-2 (산업단지)	1989. 9.10	제지용오염방지제	34	수출
	7	(주)성진하이메크	구영석	천안시 성환읍 우신리 13-1	2002. 8. 1	평판표시장치	77	수출
	8	마노자동차(주)	한봉천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451	2003. 6. 1	컨버전벤	20	
	9	(주)두선	이상택	천안시 입장면 유리 228	2001. 7. 1	자동차부품	110	수출
	10	(주)메티스	박기현	천안시 목천읍 응원리 134-13	1999. 7.23	LCD설비제어기	5	
	11	덕성산업	김병옥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128-8	1999. 1.13	지중전선관	12	수출
공주시 (1)	12	(주)한남하이텍	최만묵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33-10	1998.4. 20	산업용 양면 아크릴폼 테이프	52	수출
보령시 (1)	13	(주)폴리텍	이기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2002. 1.17	폴리에틸렌관	13	
아산시 (3)	14	(주)드리미	최애희 (女)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13-3	2004. 2. 9	LCD제어판	32	여성
	15	동서메탈(주)	조경호	아산시 실옥동 239-1	2002.11. 1	가스보일러부품	25	

시·군명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자	생산품목명	종업원	비고
	16	(주)코텍지오메트	조규용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46-8	2002. 3.12	볼트류 코팅	43	장애인고용
서산시(1)	17	(주)그린	김진학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1990. 6.12	꼬치류, 어묵류	99	
논산시(1)	18	(주)한테크	김환섭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85-5	1987. 2.16	안전강화유리 집합안전유리	30	장애인고용
금산군(4)	19	(주)미라이후손관거	장호윤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2003.10.30	내충격PVC하수관 내충격PVC오수받이	32	
	20	(주)신우기계	구완희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121	2003. 1.30	이륜차부품 (완충장치), 예초기	24	수출
	21	(주)성호이엔지	전은숙 (女)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09-4	2003.12. 8	이동식부탄연소기	26	여성,수출 장애인고용
	22	삼화엠테크(주)	정주석	금산군 복수면 다북리 327	2005. 2. 1	내압방폭 모터	23	수출
연기군	23	(주)더멋진바이오텍	이인영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0	2000. 1. 2	베타글루칸, 캐피어, 사료첨가제	10	
청양군	24	(주)필택산업	송준호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979-7	2001. 5.11	악취탈취기 액비살포기	14	
	25	신기산업(주)	김동복 (女)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56401	1985. 5. 5	상토, 유기질비료	14	여성
당진군(3)	26	(주)신화기공	황부희	당진군 송악면 석포리 844	1985. 5. 1	자동제진기, 감용기 등	15	
	27	(주)새한공업	노승학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10-1	1997. 8. 1	자동차 차체부품	30	
	28	(주)토우	박형준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899	1998. 8. 1	점토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38	

충남도 조직개편관련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 과장급이상 간부 47명 승진 · 전보인사

충남도는 7월 9일자로 조직개편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과장급 이상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조직안정과 연말 통합인사를 감안하여 인사폭을 최소화하고, 사람보다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조직의 기능, 전문성,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는 ① 업무수행능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발탁승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와 실국장 토론과정을 거쳐 복지정책담당 고영희 사무관을 발탁했으며 앞으로도 도정시책추진 유공자와 업무능력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제도를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으며, ② 여성공무원 우대차원에서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이 3급 승진과 함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정효영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승진하는 등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영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도정사 처음으로 3급 여성국장급 공무원이 탄생하는 의미있는 인사로 충남도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잔잔한 자긍심을 던져주고 있다.

그외 인사 주요내용으로는 곽유신 의회사무처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이 2급 승진과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으로, 임현용 농림수산물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이성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농림수산물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필수 감사관은 서산부시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복지환경국장으로, 명주식 의회 전문위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유제곤 정보화담당관이 꽃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농업기술원장에 강주석 기술보급국장이 각각 승진, 발령되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로는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이 서산부시장으로, 서덕철 태안부군수가 감사관으로, 서범석 공보관이 태안부군수로,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이 홍성부군수로 전보되었으며, 한근철 홍성부군수는 道의회 전문위원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서기관 승진에는 이상준 도의사회담당, 김종화 인사담당, 홍민표 유비쿼터스담당, 이두훈 예산총괄담당, 유득원 경제자유구역청 준비단장, 나창호 도청이전본부 행정도시지원담당, 정효영 여성정책담당, 고영희 복지정책담당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기술서기관 승진에는 박국진 도로계획담당, 이강우 연안관리담당, 한동희 식량작물담당이 각각 승진했다.

한편 道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전인 이달 중순경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선 4기 후반기 안정적인 도정운영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2일, 당진 예술의 전당에서 주요인사·주민 등 500명 모여 개청식 가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7월 22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태봉 충남도의회위원장,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이명수·김낙성·변웅전·원유철(평택)·김성희(화성)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민중기 당진군수, 송명호 평택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 앞서 당진읍 수청리 소재 원당 드림타워 건물에 마련된 구역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식전행사로 당진군립합창단의 '축가합창', 그룹 비트서클의

전자드럼과 전자북으로 연주하는 ‘타악 퍼포먼스’ 축하공연에 이어, 공식행사로 김성배 청장의 경과보고, 이윤호 장관의 축사, 이완구·김문수 도지사 인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룹 시사이의 ‘잉카문명 전통 안데스’ 음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8월 24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월 31일 재정경제부 지정 신청에 이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약 4개월간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오늘 비로소 개청식을 갖게 됐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이완구 도지사는 인사를 통해 “오늘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의 신 성장엔진이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것을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하고 “지식창조형 경제특구건설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기지가자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 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족한 구역청은 1청장, 2본부, 6과의 기구로 출범, 충남도 64명, 경기도 65명 등 모두 129명이 근무하며, 이완구 지사와 김문수 지사는 지난 1월 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에 세우고,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 평방미터의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

수용인구는 9만6천 세대, 23만 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7조4천여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구역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28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 산하 출연기관 경영실적 눈에 띄게 개선

-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차 17.44점으로 크게 감소 경영실적 상향 평준화

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 평가과정에 피 평가기관의 참여확대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 고객지향 경영유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평가는 관리부문, 경영부문, 고객만족도 부문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부문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정책개발원이 상위그룹에 랭크되었고 ▶관리부문은 충남발전, 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가 ▶경영부문은 역사문화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객만족도 부문은 신용보증재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의 경영이념 및 가치가 기관의 비전과 연계되어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우선 순위 조정, 또는 전략사업 개발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년도 경영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년 평가에서는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과의 격차가 30.1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12.66점으로 크게 줄어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년도 경영평가와 차별화하였다고 한다. 첫째로 평가의 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관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처음 도입했

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출연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고객만족도 반영 비율 조정 등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수요자 중심의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自然을 품는다

-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충남도가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에는 미리 공공디자인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문화 충남』을 구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심에 설치되는 공원·교량·도서관 등의 公共空間과 벤치·공중화장실 등 公共施設物 및 교통표지판·광고판 등 공공매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관광자원개발 등의 공공사업에는 전문가의 공공디자인 자문을 받도록 하여 아름답고 매력적 정감이 넘치며 다시 찾고 싶어지는 도시의 명소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도 국정과제로 Global Korea 시책의 일환으로 『디자인 코리아 2020』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에도 공공디자인 관련법안 발의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를 편제하고 대학들도 앞다퉀 관련학과를 증설하는 등 공공 및 학계, 민간 모든 분야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충남도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건축 및 도시개발분야와 한 곳에 묶어 편제하면서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할 민간전문가 선발 및 관계공무원 정예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공공디자인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디자인 波紋효과(Rippling Effect)를 노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였다.

충남도가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채 산발적이거나 무계획적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되거나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조성과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거시적·미시적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로시설물 시스템화 등을 통한 통합 디자인(Total Design) ▲불필요한 공간·시설물 제거 및 인간친화적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Human Basic Design) ▲주민 자율협정제를 통한 참여형·체험형 디자인을 위한 소통의 디자인(Community Design) ▲자연과 인간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순환가능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백제문화의 숨결이 반영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역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Regional Identity Design) 등 5개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공공주도형 지구단위 마스터플랜(Block Unit Plan)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은 도와 시군 및 전문가와 주민이 중앙부처·언론·유관기관·학계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도에서는 정책개발 및 사업구상과 공모사업 실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원론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추진 및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 등 민간을 선도할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대학교수 연구소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체는 디자인 컨설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은 주민협정제를 통한 사업추진과 디자인 공모 참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디자인자문을 받게 될 공공사업으로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건축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와 광고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 등이 디자인자문을 받게 되며 기타 도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조성사업, 테마형 관광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등 40여개의 크고 작은 시책도 디자인자문을 받게 된다.

충남도, 2008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4일부터 19일까지, 태국왕립군악대 등 31팀 1,500명 참가

충남도는 9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강태봉 도의회 의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학영 계룡시 의회의장, 지역출신 도의원, 군관계자,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장,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장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화합과 평화의 메아리, 군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군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군을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행사기간(3일 → 6일) ▲ 공연장 규모(2,800석 → 4,000석) ▲ 프로그램 참여인원(1,000명 → 1,500명) ▲ 해외참가 군악대(1개국 → 미8군과 태국왕립군악대 등 2개국) ▲ 참가 프로그램 수(27개 종목 → 53개) 등이다.

특히, 군악공연은 육·해·공군과 태국왕립군악대, 미8군취타대 등 국내외 6개 군악대가 참가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합동공연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함을 연출하게 된다.

「하나됨의 울림」이라는 합동공연의 경우 군악대와 의장대, 성악병사, 민간합창단 등 모두 442명이 출연하며 객석에도 연주자를 배치하여 관람객과 출연진이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공연모습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여명의 육·해·공군 군악대 합동공연과 성악병사, 시군 합창단의 전쟁영화 음악과 오페라 아이다, 개선행진곡 등을 연주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올해 처음 과거부터 현재 군의 발전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특히, TV나 영화에서 사용했던 삼국, 고려, 조선시대 전통군복의 실물전시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 UN참전국의 당시

군복과 소품을 확보하여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기회도 마련한다.

행사기간 공연장 주출입구에 궁궐수문 세트를 제작하고 전통복장을 착용한 장군 및 병졸 30명이 출연하는 전통수문장 근무교대식이 하루 4회 실시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퍼레이드로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엄사리 시가지 1.5km 구간에서 군악대, 의장대, 학생밴드 등 15개팀 500명이 현장에서 즉흥 연주와 동작 등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시민과 관람객도 깃발과 캐릭터를 손에 들고 참가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룡군문화축제 기간에는 육군본부가 주최하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장병들과 똑같은 식사를 맛볼 수 있는 병영식사 체험, 화상면회관, 병영생활관 등 육군의 발전상을 한 곳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2008계룡군문화축제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남발전연구원 곽유신 사무처장 취임



곽유신(59·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씨가 7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곽 사무처장은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발전과 정책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처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1980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도 감사담당관·관광과장·자치행정국장, 연기군 부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 美人명사전에 등재



충남발전연구원은 환경생태연구팀 정옥식 박사(37세, 전공-야생동물.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09년판에 이름을 올렸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는 충발연이 1995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 박사는 최근 “동북아시아 독수리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2007)”, “한국 서해안의 붉은어깨도요와 꼬까도요 체내의 *Acanthoparyphium Tyosenense* 감염상(2007)”, “큰부리바다오리의 국내 첫 관찰 보고(2007)”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야생동물보호관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 왔다.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 박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조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으며, 1899년부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충남발연, 2008년 제1차 연구자문회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7월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 및 연구원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0명과 함께 “2008년도 제1차 연구자문회의”를 가졌다.



주요 자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수행업적에 대한 평가

-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수요자와의 공동학습 및 협동연구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별 10명이상의 collaborator 확보,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선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획연구, 고객의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coaching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연구수요자 공동학습 및 협동 연구는 국책 연구원도 도입해야 하는 연구모델임
- 특히 도와 시·군 행정뿐만 아니라 도민을 연구원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함
- 그러나 연구원 규모에 비하여 과제수가 너무 많고, 출연금 지원 등이 타시도 연구원 등에 비하여 낮아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둘째, 연구 질의 개선 방안

- 연구 질은 「연구과제 선정→연구기획→연구수행→연구결과생산(보고서 작성)→연구결과의 전파와 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과제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지식 소그룹 등 공무원 집단이 연구개발 동아리 운영하면 과제 선정에 도움 가능

- 연구 질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함. 둘째 자체적 연구심의회를 내실화하고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연구결과의 생산과 전파 활용에 더욱 신경써야 함.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달 메커니즘, 전달 양식을 개발 활용하여야 함. 특히 본 보고서 외에 보다 간결하고 보다 단순한 요약 (청와대 17 포인트, A4 2매 이내) 자료 작성 역량 구축해야 함

셋째, 조직적 연구 역량의 강화 방안

- 조직적 연구역량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연구조직 및 지원체계의 개편이나 강화가 함께 하여야 함.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별 연구트랙 작성, 지원방안 마련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위한 2-3년차 연구수행 로드맵 작성 노력 필요
-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전담인력이 30명 정도에 불과한데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세분되어 연구역량 발휘가 어렵게 되어 있음. 특히 전공별 팀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전공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별폐 작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간 벽 허물기 가능한 연구조직 조정 필요
- 연구지원 체제를 강화하여야 함. 조직적 연구역량의 강화는 어떠한 연구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됨. 특히, 지식, 정보자료의 축적과 활용 증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넷째, 2009년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 방향과 내용

- 충남발전연구원은 시·도 연구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현상 및 실태조사와 분석 및 추세 전망연구에 치중해야 함. 예를 들면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와 전망과 같은 연구임
- 또한 시도연구원은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개발효과 및 추진 평가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면 지역발전과 함께 국가정책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수많은 국책사업이 지역적 연계와 협력 체계마련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이라고 생각함
-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안과제에 치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변화

와 global trend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연구 필요. 예를 들면 기후협약, 에너지, 식량문제, 삶의 질, 여성과 감성시대 도래 등

- 현재의 연구는 대부분 시책과 사업구상과 계획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등 지역특화 연구 및 집행과정의 performance consulting 연구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도 및 주요 연구과제 제시(안)
 - 황길식 위원 : 지역개발집행지원 (performance consulting) 연구
 - 김정석 위원 : 충남 동서연계와 균형발전방안, 충남물류기능 활성화와 대응계획 연구
 - 차미숙 위원 : 지역현장 실태와 추세전망 연구, 국책사업의 지역적 추진체계 및 지역화 연구,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연구
 - 김선배 위원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핵심사업 및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연구,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및 3개 시·도 협력사업 연구
 - 박동호 위원 : 지역 브랜드 개발 및 도시혁신과 지역혁신 위한 디자인 연구
 - 박종관 위원 :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연구, 정부통합평가 대비 연구
 - 임경수 위원 : 농촌공간구조변화추이와 전망, 농촌지역경제연구, 에너지 분야 연구
 - 박헌주 위원 :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trend와 지역대응 연구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원 환경에 적용된 개선과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다음 연구자문회의에 연구원 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충남도정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충남도는 7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환경,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충남도정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산업경제 분야 주제 발표를 한 박종찬 고려대교수는 "지난 2년간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과 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도내 서남부권을 육성하는 등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비롯해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경제 클러스터 구축, 의료개발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과 같은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 최봉문 목원대학교수는 "현재 충남이 직면한 도시지역개발의 주요 과제는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유치 문제, '지역 내 인구 및 산업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인적자원 수급 및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등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 기업도시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주제발표자인 최진하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장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주체를 정하는 한편 도시·환경·에너지 통합형으로 충남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 분야의 주제 발표에 나선 안성혜 상명대학교수는 "충남의 7대 역점시책 가운데 하나가 '가치가 살아 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인 만큼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또한 생명력 있는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민선4기 후반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 : 연합뉴스 7월 28일자



충남발전연구원,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펴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최근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기 위해 학술지 “충청지역연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될 이번 학술지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각 분야별 논문을 접수, 심사를 통해 뽑힌 우수 논문에 대해 편당 100만원의 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논문 모집은 10월 말까지이며, 학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웅 원장은 “학술지 발간은 연구원의 얼굴이자 우리 지역의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연구에 대한 대표 학술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발전研, 한밭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8월 28일 오전 11시 한밭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설동호)와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충발연과 한밭대간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연구원 위촉 및 교류,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공동 활용,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기술자문 및 지역연구의 공동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 가능한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연구역량 강화로 충청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밭대학교 이상호(도시공학) 교수의 해외 도시계획 관련 주제의 특강도 함께 가져 이번 조인식의 의미를 더했다.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 총회 및 세미나 가져



충청남도연구원협의회(회장 김용웅,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장을 비롯한 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충청남도연구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해 8월 가진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 간 학술·연구교류협약에 의해 구성된 이 협의회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등 총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별 연구과제 공유, 공동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각 연구기관별 운영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웅 협의회장은 “지역연구기관의 경쟁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공동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의 질 개선, 연구 예산 확보 방안, 도정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자”고 제안했다.

“2008년도 제3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제3차 “지역경제연구회”가 2008. 7. 24(목)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대전·충남지역의 경제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 혁신협의회의 연구회 조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가지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1주제 발표는 충남발전연구원 강영주 책임연구원의 “참여정부 지역 혁신 거버넌스 체계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아래 참여정부 초기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마련되어진 지역혁신협의회의 그간 활동 성과와 진단,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2주제 발표에는 한국은행 박창귀 과장의 “충남지역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남의 경제상황에 대한 특징 파악, 발전방향 모색에 참석자들의 많은 고견이 제시되어 다시 한번 우리지역의 경제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된 자리였다.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설명회 및 시·군협의회 의장단 회의” 개최

- 유류유출 피해지역 갈등 예방과 사고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시급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역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토록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 신장 도모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 13일 충청남도 와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충청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13개 시·군협의회의 수월한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공모사업설명회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시·군협의회 의장단 및 담당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군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역 내에서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시·군협의회 의장단 및 담당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군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역 내에서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시·군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9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오는 9월 5일 도 자체평가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에 3개 과제를 접수하게 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협의회에는 약 6,5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며 올해 12월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 관련 4개 시·도 실무협의회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주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지난 8월 22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금강수계 4개 시·도 관련기관을 초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협력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 이상진 센터장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 현안 및 기본계획 수립 방안’, 충북환경총량센터 배명순 연구위원의 ‘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개 시·도 관련기관의 협력방안과 주요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질의 및 건의토록 하여 원활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조와 역할이 강조되는 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기법개발」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8월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부연구진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1핵심과제 중 2세부과제로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개발”을 주제로 하는 3차년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기법개발(1-2)”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세부과제로 “지방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1-2-1)”,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2-2)”,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통합 연계방안(1-2-3)” 등 충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협동기관이 되어 11개월간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방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는 지방도시재생의 개념 정립과 지방도시의 쇠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방도시의 재생 방향과 전략 및 추진계획,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지침 및 매뉴얼 작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개발유형을 신기능·신시설형(전면철거형), 기존 기능·시설정비형(개량형), 기존 기능·시설 활

성화형(지역사회참여형)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이를 중심시가지, 산업쇠퇴지역, 도시전체쇠퇴 지역별로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 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개발을 주 연구내용으로 한다.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통합 연계방안”은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연계와 통합 및 패키지화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케 하고 국가지원재정의 절약은 물론,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의 촉진을 연구 목적으로 하며, 지방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실태 및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전략 발굴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핵심기관 및 내부 연구진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목원대 김혜천 교수, 영동대 백기영 교수, 목원대 최정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진 박사가 외부 전문가로 참석하였다.

내부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는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에 앞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등을 심의 및 논의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